

2026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의원 : 신 영 희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1. 연구 활동 결과

(대표의원 : 신 영 희)

2026. 05.



인천광역시의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I 연구배경 및 목적

□ 의정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량 증가

- 행정·정책 전반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보의 생산·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조례안·예산서·감사자료 등 방대한 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직면하고 있음.
- 정책현안의 복잡성 증가와 행정데이터의 폭발적 확대는 기존 방식 만으로는 적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기반 분석·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의정지원 기능의 혁신 요구

- AI는 문서요약, 예산 분석, 정책자료 비교 등 핵심 의정업무를 보조·대체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는 활용 기준, 교육체계, 적용모델이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 행정을 본격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역시 이에 상응하는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AI 활용 기반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외 AI·스마트 의정 도입 확산

- 해외 지방정부와 선진국 의회는 이미 AI 기반 문서검토 시스템, 정책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지자체도 스마트 의정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인천시의회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천형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음.

II 연구회 개요

- 연구주제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26. 1. 1. ~ 5. 28.
- 구성의원 : 신영희 대표의원
이봉락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참여의원 : 신영희 대표의원
이봉락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 연구활동내용
 - 1차 / 1월 27일 : 출범식(발대식), 학습간담회 개최
 - 2차 / 2월 6일 : 실습간담회 개최(1)
 - 3차 / 2월 19일 : 실습간담회 개최(2)
 - 4차 / 2월 23일 : 실습간담회 개최(3)
 - 5차 / 3월 26일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간담 및 토론)
 - 6차 / 5월 15일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간담 및 토론)
- 정책연구용역 발주
 - 용역명 :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6. 3. 18. ~ 5. 15.
 - 용역비 : 20,000,000원
 - 수행기관 : (주)맥스피아
 - 주요내용
 -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및 기능 확대
 - 통합 지식기반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의정 데이터 자산화 및 메타데이터 정비를 통한 AI 활용 기반 마련
 - 5대 동작별 AI 적용 과제 도입: 읽기·비교·요약·질의·작성 등 의정활동 핵심 동작별 자동화 과제 도입

- 우선 적용 과제 (4대 자동화 영역)
 - 조례안 비교 분석: AI 기반 유사 조례 비교 및 입법 검토 지원
 - 예산안 이상치 탐지: 예결산 심의 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치 자동 탐지
 - 회의록 요약 및 보도자료 초안 작성: 반복적 문서 작업의 효율성 제고
- 윤리·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5대 원칙 수립: 투명성·책임성·공정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적용
 - 인간 중심 책임 체계(Human-in-the-loop) 명문화: AI를 ‘지능형 비서’로 한정하고 최종 책임은 의원이 부담
 - 사고 대응 SOP 마련: 개인정보·비공개 자료의 외부 AI 입력 금지 및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
- 중장기 실행 로드맵 : 2026년까지 기초 구축 → 시범 운영 → 제도화 → 고도화의 4단계 도입 로드맵 제안

III 세부 연구활동내용

- 제1차 출범식(발대식), 학습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6. 1. 27.(화) 14:00~17:0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신영희 대표의원, 김종배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나성수 대표 및 이명조 이사, 정책지원관 등 11명
 - 발 제 자 : 밸류앤코어스 나성수 대표
 - 주요내용
 - AI 및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 사례 공유
 - 입법·정책 분석·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의 AI 활용 가능성 검토

- 지방의회 환경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 및 운영 방안 논의
- AI 활용 과정에서의 제도적·기술적 쟁점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 향후 AI 기반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방향 설정

- 관련사진



홍보전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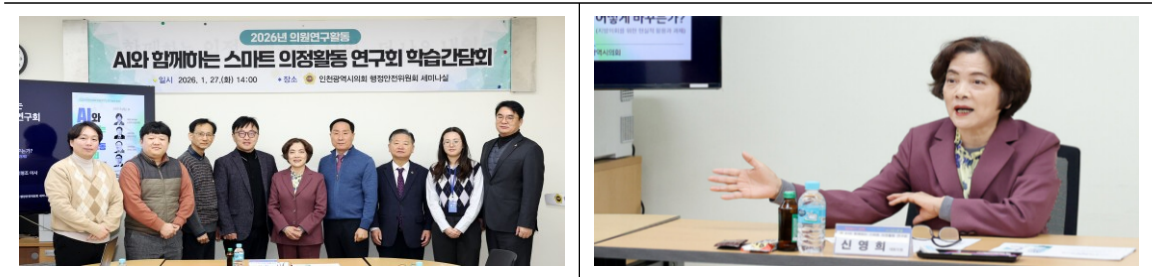


의회 1층 전광판 홍보



현수막 시안





- 발표자료

인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
(지방의회를 위한 현실적 활동과 과제)

진행 : 별류엔코어스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일시 : 2026. 1. 27(월) 14:00 ~ 17:00

장소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오늘의 목표 & 현실 공감

참석자 현실 공감

의정활동, 대민지원, 행사 참석에 2026년 선거 준비까지...
"지역 현안 처리, 대외 활동은 많은데, 의정 개발과 연구 시간은 부족하고..."

AI의 역할 정의

새로운 '공부거리'가 아니라 업무를 덜어내는 '업무 감량 장치'

오늘의 목표 3가지

- » 요약 → 브리핑
단순 요약을 넘어 판단을 위한 브리핑으로
- » 질문 → 생성
답변을 얻는 단계에서 문제를 만드는 단계로
- » 반복 → 자동화 예시보기
매일 하는 업무를 템플릿으로 고정

의정에서 AI가 강한 6개 영역

브리핑

단순 요약을 넘어, 발언 반복, 질문 요구자료를 한 곳에 구조화

입법-연구

인 지체로 인해 정책 비교, 근거 데이터 탐색 및 구조화 비교표 초안 자동 생성

시정감사

공약이 아닌 각종 공약, 요구사항을 찾는 정리하여 예산-성과-개약 정리 분석

주민의견

인원 텍스트 자동 분류, 위원/간담회/주민소화도출 사실확인 체크리스트 생성

홍보-SNS

1인 활동용 멀티캐널로, 유튜브/인스타그램/트위터 등 SNS 자동 생성 및 콘텐츠 관리

학습-반론대비

정책 논리 구조 강화, 해당 법률/사건/과제 대응 핵심한 원인의 빠른 학습

오늘의 진행 흐름

AI트렌드 살펴보기

→

의정비서형 AI 실습

→

하이브리드 AI 실습

프롬프팅 예제 / 결과 확인

구글 Gemini, 구글 Notebook LM

한 눈으로 보는 생성형 AI

- ◆ GPT :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 ◆ Paramita (매개자) vs 인간의 시냅스(약 100조 개)

모델	Paramita (완성도 축)	Paramita 수 (추정/공개)	출처/비고
GPT-4.5	감정적 완성도 (P-완성도)	루머: 약 12조 (공식 미공개)	Hacker News 등 커뮤니티 루머 기반

생성형 AI 활용 영역 => 호모 프롬프트

AI 영역

↕

인간영역

AI 활용 4단계 로드맵

STEP 01

Q

답해주는 AI

단순 검색 및 요약 정보 습득 단계

STEP 02

P

생성하는 AI

문서-콘텐츠 초안 생성 산출물 제작 단계

GOAL

의정비서 AI

개인화된 워크플로우 나만의 AI 비서 완성

STEP 03

R

자동화하는 AI

반복 업무 템플릿화 업무 무인 표준화

질문하고 답하는 ChatGPT

기계 장치로 소통하는 AI 비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Nano Banana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생성형 AI는 만능

- 이제는 텍스트~
감성까지도 =>
멀티 모달(Modal) 기능



생성형 인공지능 메카니즘



[의정 활동 예시 프롬프트] : 기초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질문(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은 우리말로 '검색 중감 생성' 기법으로 AI(생성형 모델)가 자기 머릿속(학습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최신자료나 조례를 참조해서 답변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1. 페르소나 (역할 설정)

"너는 수석 정책 컨설턴트이자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야. 학술적 데이터를 매력적인 기획서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탁월해."

2. 목표 및 배경 (Context)

"***시 문화특구 조성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줘. 상하이 우량루 (생활성)와 뉴욕 타임스 스퀘어(상징성) 사례를 기반으로 해야 해."

3. 핵심 요구사항 (Key Instructions)

- 관점: 단순 개발이 아닌 '도시 자산의 문화적 재구성'을 강조할 것.
- 비고: 우량루와 타임스스퀘어의 특성을 ***시 상황에 맞게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할 것.
- 전략: 다층적 커뮤니케이션을 [공감-이해-비전] 또는 대상으로 세분화할 것.

4. 형식 및 스타일 (Formatting)

- 가독성: 소재목, 표(Table)를 사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것.
- 톤앤매너: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어조를 유지할 것.
- 참조 자료는 반드시 주석을 달 것



<실습 자료 / 블로그>



<상하이 우량루 거리 / by ChatGPT>

[실습 예시] 만화 형태로도 제작 by ChatGPT



[실습 예시] 영상 형태로도 제작 by Gemini Story Book



<유투브 영상>



글쓴이: MEONGJO LEE (Papa is n...)

사례 통합: 입법·감사·민원의 AI 혁신

입법·연구

- ✓ 타 지자체 조례 정책 비교·차별 분석
- ✓ 행정·교과·부처장을 한 페이지로 구조화

RESULT
단순 검색 시간 70% 단축
→ 정책 입안에 도움

시정감사

- ✓ 공직자 이념·정당·연속 (예산·성적·재무·주요)
- ✓ 모든 입법·연구자료·국회 자료 구축

RESULT
입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 행정부·대중·제도·변화

민원대응

- ✓ 용역/인건비/예산요구 자동 분류 및 정리
- ✓ 약속 날짜 있는 120자 물결 답변초안

RESULT
담당 속도 2배 향상
→ 주민 신뢰도(지드레) 상승

AI에게 명령하는 프롬프팅 예시 -> Google Notebook LM

나는 인천광역시회의의 현역 시의원인 신영희 의원이다.

나는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출생 인천광역시에서 살았으며 인천광역시 소재 농협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은행 퇴직후 중진군 등에서 기초지자체 의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제9대 인천광역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중진군 등 해안군,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

자타가 공인하는 열정과 집념력으로 약 20여 년 가까이 되는 군의회, 시의회 활동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과 경제 환경, 시민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지방선거의 경선 및 본선 승리 전략을 짜고 싶다.

이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전략적 검토 및 실행 방안 도출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나의 대외적인 인지도, 의정 성과, 주민들의 반응과 지지도 흐름, 내가 속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특성 강약점, 언론과 공중의 인식 흐름, 나의 의정 성과 및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하여 2026년의 재선 승리 전략을 짜고자 한다.



NotebookLM

브랜딩 로드맵: '나의 AI 비서'

- 20 -

- 보도자료

현대일보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004면 중합



인천시의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가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자료분석 등 활용사례 공유 발전방향 모색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의 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 제도적·기술적 장벽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보안 문제, 활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의정환경은 이미 데이터 중심, 디지털 기반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학습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득 기자 lawjongd@hermal.net

경인종합일보

2026-01-27 23:24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전환 모색

[박형남]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학습간담회 개최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박형남 기자] 인천형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과제 구체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인수·조현영 의원과 사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 제도적·기술적 장벽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보안 문제, 활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의정환경은 이미 데이터 중심, 디지털 기반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학습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이번 학습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연구모임과 현장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인천형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뉴스

2026-01-28 11:01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전환 모색

[김종국]

-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학습간담회 개최
- 인천형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과제 구체화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학습 간담회, 시의회 포토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지난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의정활동 전반에 요구되는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응함은 물론 입법·정책 분석, 의정자료 관리 등 의정 전 과정에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김종배·한인수·조현영 의원과 사데이터 전문기업 밸류엔코어스의 나성수 대표, 이명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AI는 의정활동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정책자료 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등 실제 의정활동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지방의회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학습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포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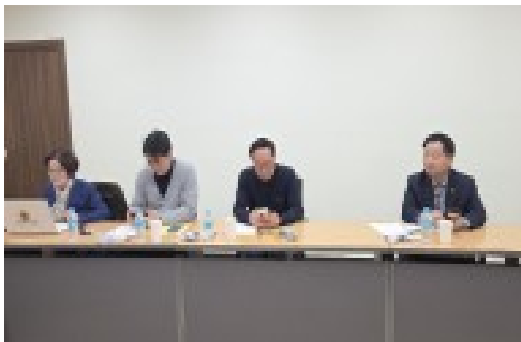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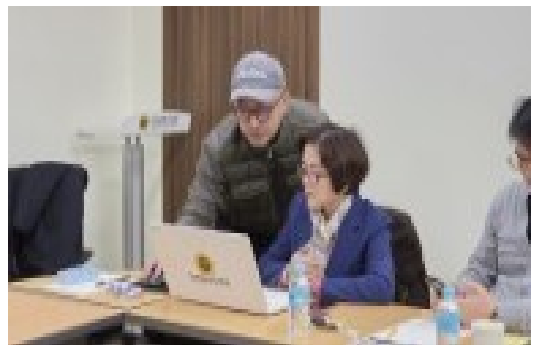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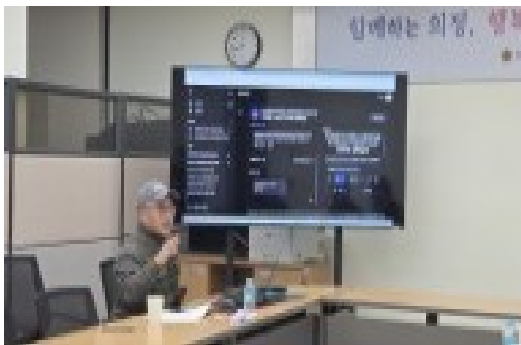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AI 활용 과정에서 제도적·기술적 장벽과 함께 의정활동에 AI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보안 문제, 활용 기준 마련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의정환경은 이미 데이터 중심, 디지털 기반 등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번 학습간담회를 계기로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이번 학습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연구모임과 현장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인천형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 방안과 정책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제2차 실습간담회 개최(1)

- 일 시 : 2026. 2. 6.(금) 08:00~12:3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신영희 대표의원, 김종배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밸류앤코어스 나성수 대표, 이종선 용진군의원,
정책지원관 등 9명
- 주요내용
 - AI 기반 의정활동 도구 개요 및 핵심 기능 이해
 - 입법·정책 분석·의정자료 관리 등 분야별 AI 활용 시연 및 체험 실습
 -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AI 활용 실습 및 우수 사례 공유
 - 실제 의정업무 사례 기반 AI 적용 워크숍 및 문제해결 실습
 - AI 도구 활용 시 데이터 보안 및 윤리적 이슈 실무 교육
 - 의원별 맞춤형 AI 활용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논의
- 관련사진





○ 제3차 실습간담회 개최(2)

- 일 시 : 2026. 2. 19.(목) 08:00~12:0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신영희 대표의원, 김종배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밸류앤코어스 나성수 대표, 정책지원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지능형 의정 성과 데이터 수집 : Genspark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본회의 발언, 지역구 활동 기사, 블로그 등 산재된 의정 활동 데이터를 자동 탐색 및 수집하고 지역구 주요 민원 키워드와 연계된 의정 활동 성과 연결하기
 - 맞춤형 의정보고서 초안 자동 생성(Sparkpage) :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Genspark의 ‘스파크페이지’ 기능을 이용해 가독성 높은 의정 보고서 레이아웃 구성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성과 요약 및 시각적 프레임 구축 실습
 - 다채널 의정 홍보 콘텐츠 제작 자동화 : 생성된 의정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블로그 포스팅, 인스타그램 카드 작성

- 뉴스 문구, 보도자료 초안 등 채널별 맞춤 콘텐츠 변환 :
Genspark의 실시간 웹 검색 기능을 이용해 현재 가장 효과적인
홍보 키워드 및 해시태그 추출 등

- 관련사진



○ 제4차 실습간담회 개최(3)

- 일 시 : 2026. 2. 23.(월) 15:00~18:1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신영희 대표의원, 김종배 의원, 한민수 의원, 조현영 의원, 밸류앤코어스 나성수 대표, 정책지원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제미니(Gemini) 기반 거시적 의정 로드맵 및 정책 프롬프팅 적용
 - 젠스파크(Genspark)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콘텐츠 자동화
 - 다채널 디지털 소통 체계 고도화
- 관련사진



○ 제5차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간담 및 토론)

- 일 시 : 2026. 3. 26.(목) 08:00~09:3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신영희 대표의원, 이봉락 의원, 조현영 의원, (주)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 착수보고
- 관련사진



홍보전단지



의회 1층 전광판 홍보



현수막 시안



인천시의회,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기반 구축

신영희 의원,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스마트 의정활동 모델과 제도적 기반 마련' 착수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2026. 3. 26.(목) 08:0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인천광역시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적합한 AI 활용 모델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의정활동 기반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조현영 의원, 용역 수행기관인 ㈜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및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

면서 공공행정과 정책 분야 전반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정책자료 분석, 조례안 검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의정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과 연구 방향, 주요 과업,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 용역은 ▲AI 기술 동향 및 공공분야 활용 분석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적용성 진단 ▲국내외 의회 도입 사례 조사 ▲인천형 AI 활용 방안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윤리기준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의회 의정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자료 분석과 자료 요약, 질의서 및 보고서 초안 작성, 정보 탐색 등 의정활동의 반복적·정형적 업무에 AI를 집중해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정보보안, 결과물 검증 및 책임성 확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약 90일간 추진되며, 최종적으로 인천시의회 맞춤형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정책 품질 제고, 업무 효율화,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AI 기술은 이제 의정활동의 보조 수단을 넘어 정책의 질과 의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활용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순화 기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2026. 3. 26.(목) 08:0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신영희 시의원,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정책연구 용역 착수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조현영 의원, 용역 수행기관인 ㈜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및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 보고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과 연구 방향, 주요 과업,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AI 기술 동향

및 공공분야 활용 분석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적용성 진단 ▲국내·외 의회 도입 사례 조사 ▲인천형 AI 활용 방안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윤리기준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 의정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날 정책자료 분석과 자료 요약, 질의서 및 보고서 초안 작성, 정보 탐색 등 의정활동의 반복적·정형적 업무에 AI를 집중해 업무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정보보안, 결과물 검증 및 책임성 확

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약 90일간 추진되며, 최종적으로 인천시의회 맞춤형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정책 품질 제고, 업무 효율화,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AI 기술은 이제 의정활동의 보조 수단을 넘어 정책의 질과 의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활용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화 기자

市 의회, 인천형 의정 혁신 본격화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정책연구 용역 착수

인천시의회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환경 속에서 적합한 인공지능(AI) 활용 모델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의정활동 기반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의 대표인 신영희 의원은 비롯해 이봉락·조현영 의원, 용역 수행기관인 ㈜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및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행정과 정책 분야 전반에서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역시 정책자료 분석, 조례안 검토,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의정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이번 정책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과 연구 방향, 주요 과업, 향후 일정 등이 공유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AI 기술 동향 및 공공분야 활용 분석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적용성 진단 ▲국내외 의회 도입 사례 조사 ▲인천형 AI 활용 방안 및 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윤리기준 및 실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핵심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의회 의정 환경에 적합한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정보보안, 결과물 검증 및 책임성 확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아울러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정보보안, 결과물 검증 및 책임성 확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 용역은 약 90일간 추진

되며 최종적으로 인천시의회 맞춤형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이 제시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정책 품질 제고, 업무 효율화, 의정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AI 기술은 이제 의정활동의 보조 수단을 넘어 정책의 질과 의회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인천시의회에 적합한 AI 활용 기준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혁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은주 기자 0617771@naver.com

● 일시 2026. 3. 26.(목) 08:30 ● 장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의원을 비롯해 이봉락·조현영 의원, 용역 수행기관인 ㈜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및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제6차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간담 및 토론)

- 일 시 : 2026. 5. 15.(금) 16:00~19:00
-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 등
- 참 석 : 조현영 의원, 한민수 의원, (주)맥스피아 김덕진 대표이사, 나성수 이사, 정책지원관 등 10명
-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 최종보고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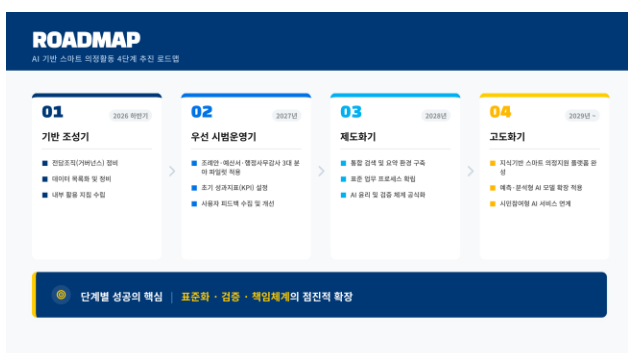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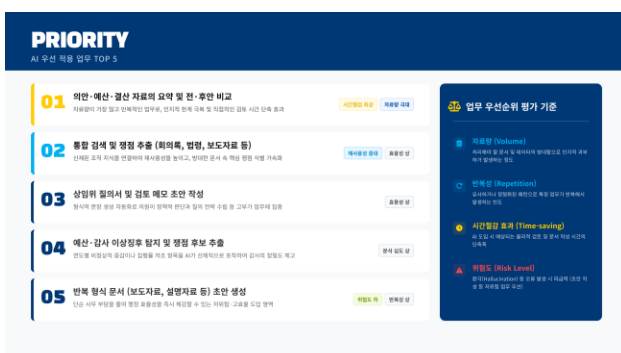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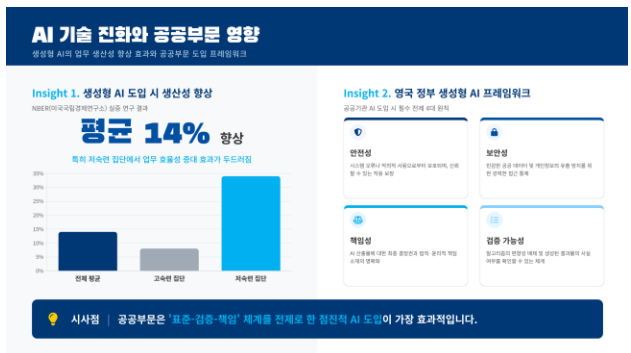
홍보전단지



현수막 시안



- 최종보고 자료



ETHICS

안전하고 책임있는 AI 물류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6대 윤리 원칙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5단계 검증 절차

1. 입력 (Input)

2. 생성 (Generate)

3. 검토 (Review)

4. 승인 (Approve)

5. 기록 (Record)

핵심 운영 포인트

인공지능 서비스, 데이터 출처 명시, **인간의 최종 결정, 로그, 감사 추적**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RECOMMENDATIONS

인공지능의 AI 도입 8대 정책 제언

01

AI 활용범위·금지사항 명확화

02

전달 기반 비즈니스 협의체 설치

03

외장지식 자산 재구조화

04

다층적 책임 구조

05

데이터의 소유권 체계

06

안전한 폐쇄형 환경

07

성과지표(KPI) 연계

08

법·제도 정비 및 예산 반영

EXPECTED IMPACT

정책 품질과 행정 효율의 동시 강화

예상 개선점 향상 (IMPROVEMENT)

약 14% UP

자료 처리 및 검토 시간 **절감**

핵심 위험 관리 및 정책 조작성 **가속**

정량적 효과 Quantitative

정성적 효과 Qualitative

CONCLUSION

결론 및 향후 추진 과제

인공지능의회는 '표준-검토-확정' 기반의 단계적 AI 도입을 통해 정책 품질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01

파일럿 과제 선정 및 KPI 수립

02

데이터 정비 및 기반인프라 구축

03

교육·윤리 내재화

04

성과 기반 정량적 확산

인공지능의회의 비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정활동의 모범 모델 완성

THANK YOU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 A

질의응답 및 제언을 환영합니다

2026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소속의원 : 김영희 · 이봉익 · 원만주 · 조현영

- 32 -

경기매일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013면 인천

인천시의회, AI로 스마트 의정활동 혁신 기반 마련



인천광역시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의정활동의 실행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영희 의원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영희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회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위임을 받아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생성형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의회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합한 AI 활용 분야와 도입 원칙,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회기 중심의 시간 압박, 방대한 조례·예산·감사 자료 검토 부담, 비표준화된 문서 형식, 담당자 교체에 따른 조직 기억 단절, 반복적인 문서 작성 관행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의안·예산·결산 자료 요약 및 비교, 회의록·법령·보도자료 통합 검색과 정책 추출, 상임위원회 회의 질의서 및 검토 메모 초안 작성, 예산·감사 이상징후 탐지, 반복 형식 문서 초안 생성 등을 AI 우선 적용 업무로 제안했다.

"AI로 의정 효율 높인다"

인천시의회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또한, AI 도입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등 6대 윤리 원칙과 입법·행정·검토·송인·기록의 5단계 검증 절차를 제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전담 거버넌스 정비와 데이터 목록화, 내년 조례안·예산서·행정사무감사 등 3대 분야 시범운영, 2028년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윤리·검증 체계 제도로, 오는 2028년 이후 지속 가능한 스마트 의정활동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 등도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AI 활용은 의정활동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 검

토의 정확성과 정책 판단의 깊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결과가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영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시의회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활용할 것인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AI를 책임 있게 활용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정책 검토와 현안 대응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신영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영학·한민수·조현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AI 활용 지침 마련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철 기자

일간투데이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008면 지역



인천시의회, AI로 스마트 의정활동 혁신 기반 마련

안홍성 기자 ash1100@nmail.net

인천광역시의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의정활동의 실행 방향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사진>

시의회는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영희 의원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신영희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회 소속 조현영 의원이 대표의원의 위임을 받아 주재했다.

이번 연구는 생성형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방의회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합한 AI 활용 분야와 도입 원칙,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보고에서는 회기 중심의 시간 압박, 방대한 조례·예산·감사 자료 검토 부

담, 비표준화된 문서 형식, 담당자 교체에 따른 조직 기억 단절, 반복적인 문서 작성 관행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의안·예산·결산 자료 요약 및 비교, 회의록·법령·보도자료 통합 검색과 정책 추출, 상임위원회 회의 질의서 및 검토 메모 초안 작성, 예산·감사 이상징후 탐지, 반복 형식 문서 초안 생성 등을 AI 우선 적용 업무로 제안했다.

또한, AI 도입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등 6대 윤리 원칙과 입법·행정·검토·송인·기록의 5단계 검증 절차를 제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전담 거버넌스 정비와 데이터 목록화, 내년 조례안·예산서·행정사무감사 등 3대 분야 시범운영, 2028년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윤리·검증 체계 제도로, 오는 2028년 이후 지속가능한 스마트 의정활동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

경기매일...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013면 지역

시의회, AI로 스마트 의정활동 혁신 기반 마련

지침·단계별 실행 방안 논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의회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를 제시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전담 거버넌스 정비와 데이터 목록화, 내년 조례안·예산서·행정사무감사 등 3대 분야 시범운영, 2028년 표준 업무 프로세스 및 윤리·검증 체계 제도로, 오는 2028년 이후 지속가능한 스마트 의정활동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 등도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AI 활용은 의정활동의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료 검토의 정확성과 정책 판단의 깊이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결과가 실제 의회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회 차원에서도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영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인천시의회 업무 특성에 맞춰 AI를 어디에, 어떤 원칙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활용할 것인지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AI를 책임 있게 활용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더 깊이 있는 정책 검토와 현안 대응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는 신영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영학·한민수·조현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AI 활용 지침 마련과 단계별 실행 방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본 기자 bakbon777@naver.com

○ 연구회 연구결과 <총평>

-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 연구」를 주제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활동 연구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의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이다. 연구회는 생성형 AI 확산이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자료 분석, 대민 소통 등 의정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의회의 업무 특성과 제도적 여건에 맞는 AI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번 연구는 (주)맥스피아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026년 5월 15일 최종 연구 보고서 제출을 통해 연구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의미는 연구용역 결과 도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연구단체가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향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AI를 의정활동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의원의 정책 판단과 의회사무처의 지원역량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조례안 검토, 예산·결산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정책자료 요약, 질의서 초안 작성, 민원·주민의견 분석 등 지방의회 핵심 기능 전반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함께 검토하였다.
- 연구는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공공부문 활용 환경 분석, 인천

광역시의회 의정업무 구조 진단, 국내외 의회·공공부문 AI 도입 사례 비교, AI 도입 전후 의정업무 변화 분석, 적정 활용업무 도출, 윤리기준 및 실행 가이드라인 수립, 단계별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도출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연구회는 연구 결과가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의정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 분야와 단계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연구결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조례안·예산안·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대량의 문서를 제한된 회기와 인력 구조 속에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기존 수작업 중심의 자료 분석 방식만으로는 의정활동의 속도, 정확성, 정책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AI 활용에 대한 체계적 내부 기준, 보안·개인정보 보호 원칙, 결과 검증 절차, 책임소재 기준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AI 도입 이전에 운영체계와 통제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과제로 진단되었다.
-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의정활동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원과 의회사무처의 판단을 보조하고 자료 검토의 범위와 속도를 확장하는 ‘의정지원 지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AI 활용은 전면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최종 판단, 원문 대조, 사실 확인, 책임 있는 검토 절차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조례안 작성 지원, 예산서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고효율·저위험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특히 연구회는 AI 활용의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 책임성, 투명성, 신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I가 생성한 자료나 초안은 반드시 원문 대조와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하며, 최종 판단과 대외적 책임은 의원과 담당자가 부담하는 인간 중심의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의회가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가 AI 기반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① 내부 운영지침 및 윤리·보안 기준 마련, ② 조례안·예산서·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분야의 시범 적용, ③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수준별 교육, ④ AI 활용 결과에 대한 검증·기록·평가체계 구축, ⑤ 중장기적으로 의정자료 통합관리 및 맞춤형 AI 지원체제로 고도화하는 단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가 AI 시대의 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회는 AI 활용을 특정 기술이나 프로그램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 기반의 과학적 의정활동, 정책분석 역량 강화, 행정감독 기능 고도화, 시민 소통 확대와 연결되는 의정혁신 과제로 바라보았다.
- 종합하면,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가 AI 기반 스마트 의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초자료를 마련한 연구이자, 의원연구단체가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여 의회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한 활동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연구결과가 내부 지침 제정, 시범사업 추진, 의원 및 의회사무처 교육, 의정자료 관리체계 개선, 정책 지원 업무 고도화로 연계된다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업무 효율성 뿐만 아니라 입법·감사·예산심사·시민소통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 성과 <실적>

가. 입법활동 등(관련 규정·지침 정비 등)

첫째,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AI 활용 기본 운영지침」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회는 AI 활용이 의원 개인이나 부서별 판단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정보보안, 책임소재, 산출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AI 활용 대상 업무, 허용업무와 제한업무, 입력금지 정보, 결과물 검토 절차, 오류 발생 시 조치 방식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의원실과 의회 사무처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개인정보·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민원자료, 내부 검토자료, 예산·감사 관련 비공개 자료, 정책 검토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 정보 등이 다수 활용된다. 연구회는 이러한 자료가 외부 AI 도구에 무분별하게 입력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나 기밀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접근권한 설정, 비식별화 조치, 민감정보 입력 제한, 로그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AI 산출물 검증 및 책임 기준 마련을 제안하였다. AI가 생성한 조례안 초안, 질의서, 보고자료, 정책 검토문 등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최종 의정자료가 될 수는 없다. 연구회는 AI 산출물에 대해 반드시 원문 대조와 사실 확인을 거치고, 최종 판단과 대외적 책임은 의원 및 담당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 검증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넷째, AI 활용 이력 관리와 평가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회는

AI 활용이 일회성 편의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의회 내부의 업무혁신 경험으로 축적되기 위해서는 활용 과정에 대한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어떤 업무에 AI를 활용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물이 작성되었는지, 검토·수정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견되었는지 기록함으로써 향후 활용사례를 축적하고 의회 내부의 조직학습 자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윤리·보안·책임성 중심의 내부 체크리스트 도입을 제안하였다. 투명성, 공정성, 설명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유지, 인간의 최종책임 원칙을 기준으로 AI 활용 전·중·후 단계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실무형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AI 활용이 효율성뿐 아니라 공공성과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AI 활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문제의식을 확산시켰다. 연구회는 AI 기술 도입을 기술부서나 행정 업무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입법·예산·감사·주민대표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전체의 의정역량 강화 과제로 접근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광역시의회가 AI 활용 기준과 관련 제도 정비를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의제를 형성하였다.

일곱째, 향후 조례·규칙·내부지침 등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지침, 보안 기준, 산출물 검증 절차, 책임 기준, 활용 이력 관리체계 등은 향후 인천광역시의회 내부 규정 정비나 관련 지침 마련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정책개발 등(제안 사항)

첫째, 인천형 AI 스마트 의정활동 단계별 도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연구회는 AI 도입을 일시에 전면 확대하기보다 준비기, 시범운영기,

확산기, 고도화·제도화기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초기에는 문서환경 정비와 내부 기준 마련에 집중하고, 이후 조례안 작성 지원, 예산서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등 우선 적용 가능 업무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둘째, 우선 시범과제 선정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는 조례안 작성 지원, 예산서 분석,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AI 활용의 우선 시범 분야로 제시하였다. 이들 업무는 자료량이 많고 반복적 검토가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최종 검토를 통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AI 도입 초기의 실효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과제로 평가되었다.

셋째, 의정업무 기능별 AI 활용모델을 제안하였다. 입법 기능에서는 유사 조례 비교, 상위법령 검토, 조례안 초안 보조, 쟁점 정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예산 기능에서는 예산서 항목 비교, 전년도 대비 증감 분석, 사업 설명자료 요약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행정감사 기능에서는 감사자료 분류, 반복 지적사항 정리, 질의 초안 작성 보조, 현안별 쟁점 분석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민 소통 기능에서는 민원 유형 분류, 주민의견 요약, 정책 수요 파악 등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AI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AI 활용은 도구 사용법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생성형 AI의 기본 원리, 프롬프트 작성법, 사실 검증 방법, 개인정보 보호, 윤리적 활용 기준, 의정업무별 적용사례 등을 포함한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신규 의원과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이 공통 기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 교육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다섯째, 의정자료 통합관리와 AI 활용 기반 정비를 제안하였다. 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례안, 회의록, 예산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책연구자료 등 의정자료가 검색·분류·추적 가능한 형태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AI 도입의 핵심이 특정 프로그램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가 활용 가능한 문서환경과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

여섯째, 윤리·보안 중심의 공공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각, 편향, 개인정보 침해, 기밀 유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허용업무와 제한 업무를 구분하고, 산출물 검증 절차와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천광역시의회가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일곱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시범운영 단계에서 업무시간 단축, 자료검토 범위 확대, 오류 발생 여부, 사용자 만족도, 정책자료 품질 변화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기준과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AI 활용이 일회성 실험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차원의 지속적인 업무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의원연구단체 후속 활동과 연계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회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AI 활용 교육, 시범 적용 분야 선정, 의정자료 관리체계 개선, 내부 운영지침 마련, 타 지방의회와의 정책교류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후속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는 연구성과가 보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아홉째, 인천광역시의회가 타 광역의회와 차별화된 스마트 의정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회는 AI 활용을 효율성 중심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윤리, 보안, 책임성, 검증체계를 함께 설계함으로써 공공형 AI 활용 모델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향후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AI 활용의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 기대효과 및 활용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된 AI 스마트 의정활동 적용방안은 인천광역시 의회의 의정업무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조례안 검토,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정책자료 분석, 민원·주민의견 정리 등 자료 검토와 문서 작성 비중이 높은 업무에서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원과 의회 사무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책 검토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입법활동 측면에서는 유사 조례 비교, 상위법령 검토, 조례안 주요 쟁점 정리, 개정 필요사항 도출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기초자료 수집과 비교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의원이 입법 취지와 정책적 타당성 판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향후에는 조례안 검토 체크리스트와 AI 활용 절차를 연계하여 입법 검토의 표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예산·결산 심사 분야에서는 방대한 예산서와 사업설명자료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 반복 편성 사업, 집행률 저조 사업, 성과 미흡 사업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원별 질의 준비와 상임위원회 심사자료 작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전 사전 분석자료를 체계화하면 한정된 심사 기간 내에도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제출자료, 전년도 지적사항, 언론 보도, 민원 내용,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AI를 통해 반복 지적사항, 미이행 과제, 예산 대비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 시민 불편과 연계된 현안을 사전에 분류하면 감사 질의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확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개선과 책임 있는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책지원 업무 측면에서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현안 분석, 토론회 자료,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보도자료, 회의자료 등을 작성할 때 AI를 기초자료 정리와 초안 구성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판단과 표현, 사실 확인은 반드시 담당자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AI 활용의 효율성과 의정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인력은 반복적인 문서 정리보다 정책 논리 구성, 쟁점 분석, 대안 제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대민 소통과 주민의견 수렴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 민원, 주민 제안, 현장 간담회 의견, 지역 현안 관련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요구를 정리하면 지역별·분야별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도서지역, 원도심, 사회적 약자 지원, 생활안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함으로써 의원의 현장 의정활동과 정책 제안의 근거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내부의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I 활용 기본지침, 개인정보 및 보안 기준, 입력금지 정보, 산출물 검증 절차, 책임소재 기준, 활용 이력 관리 방식 등을 구체화하면 의원실과 의회사무처가 동일한 원칙 아래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사용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회 차원의 통일된 AI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육 및 역량강화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업무, 위험요인, 윤리기준, 단계별 로드맵은 의원,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활용 교육과정의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다. 생성형 AI의 기본 이해, 프롬프트 작성법, 사실 검증 방법, 보안 유의사항, 의정업무별 활용사례를 포함한 실습형 교육을 운영하면 의회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회의록, 조례안, 예산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책연구보고서, 시정질문 자료 등을 검색·분류·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면 AI 기반 의정지원의 정확성과 활용성이 높아진다. 이는 향후 의정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지능형 검색체계, 맞춤형 정책분석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향후 후속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의정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의회 운영과 의정지원체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다. 향후 연구결과는 의원연구단체의 후속 연구, 정책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 제안, 의회사무처 업무혁신 과제 발굴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활용 방향은 AI 도구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광역시의회가 자료 기반의 과학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조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가 실제 운영지침, 시범사업, 교육과정, 의정자료 관리체계로 연계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는 업무 효율성, 정책 분석력, 행정감독 기능, 시민 소통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타 광역의회와 차별화되는 인천형 스마트 의정 모델을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AI 활용을 효율성 중심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윤리·보안·책임성·검증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의회 AI 활용 표준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인천광역시의회의 후속 시범사업, 내부 지침 제정, 의원연구단체 후속 활동, 의회사무처 업무혁신 과제, 타 지방 의회와의 정책교류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